

# 家族計劃의 弘報戰略 研究

金 圭 煥

目	次
第一章 序	第二節 Media別 F.P.의 寄與度
第二章 知識・態度・實踐	第三節 Slogan 및 惡所聞에 對한 反應
第三章 Communication	第四節 Communication 變數間의 相關關係
第一節 Mass Communication	第四章 結論

## 第一章 序

### 第一節 研究目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家族計劃事業이 활발히 進行된 1960年代 以後 가족계획에 관한 수많은 研究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가족계획에 관한 弘報活動의 效果를 分析하고 이의 問題點 및 對策 또는 홍보활동의 戰略等を 철저히 研究한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研究는 가족계획 홍보활동에 主眼點을 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局面에 대한 研究의 出發이요, 試圖라 하겠다.

이번 研究가 비록 당초 出發時에 품었던 큰 意慾과는 달리 ——中間過程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人的・환경적 變化에 따라—— 多少 期待에 미흡한 結果를 낳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가족계획史上 아직 밝혀지지 않은 世界에 대한 작은 도전이요 개척이라고 보아 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번 調査의 궁극적 目的은 實用的 利用이 可能한 結果를 얻는데 있다.

이와 같은 궁극적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번 研究의 焦點을 다음 事項에 맞추었다.

#### 1. 現行 弘報體制의 分析

가. Mass Media 接觸度, Credibility, 영향력 分析

나. 홍보자(계몽원 등)의 Credibility, Influence 分析

다. 現行 홍보 Message 接觸度, 記憶度, 反應度 調査

#### 2. 보다 效果的인 弘報活動을 爲한 方向 提示

3. 가족계획에 관한 知識・態度・實踐 (KAP) 現況 分析 및 KAP間의 gap 추적

4. 가족계획에 관한 Rumour의 영향과 接觸度 分析



(3) 한 家口內에 둘 이상의 可妊夫婦가 있을 경우는 그 중 年少한 夫婦를 응답자로 선정하였다.

(4) 표본에 추출되었더라도 夫婦중 어느 한쪽이 난관수술, 정관수술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不妊, 斷産되었으면 즉시 면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배우자가 계속해서 1年이상 장기出他 중인 경우나 남편이 小室을 얻어 실제로 夫婦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調查對象 및 方法

##### (1) Sample Size

對象者의 特性은 Pilot Study의 경우와 같으며 Sample Size는 다음 表와 같다.

表 1-2. 計劃上의 Sample Size

地 域	性 別	male	female	Total
서 울 中 流		200	200	400
서 울 下 流		200	200	400
農 村		250	250	500
Total		650	650	1,300

表 1-3. Survey 後의 Sample Size

地 域	性 別	male	female	Total
서 울 中 流		203	224	427
서 울 下 流		192	207	399
農 村		244	261	505
Total		639	692	1,331

##### (2) 調查地域 選定方法

서울中流는 중류계층이 비교적 많이 居住하고 있는 地域中에서 갈현동, 보문 1·2동, 서교동, 반포 Apt.(22평), 세운상가 Apt. 地域을 random sampling으로 選定하였다. 서울下流는 서울市에서 釐정한 구호대상지역 가운데서 옥수동, 마장 1·2동, 답십리 3·4동, 봉천 1·2동을 서울中流와 같은 方法으로 sampling하였으며, 농촌의 경우는 충남 보은군 삼승면의 12개 里 가운데 11個 里를 선정하였다.

특히 삼승면의 경우는 市·郡, 고속도로, 철도역으로부터의 거리(보통 10리 이상)를 고려하여 有意하게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 (3) 調查方法

일단 Pretest과정(1974. 8. 9~1974. 8.10 서울지역에서 20名을 대상으로 實施)을 거친 後 Main Survey에 들어갔다.

1974. 8.15~1974. 8.22에 調査表(內容別添)를 利用, 抽出된 全 對象者를 標準化 面接(Standardized Interview)하였다.

### 3. 統計的 處理

Main Survey가 끝난후 Editing, Coding을 거쳐 1974年 10月中 Computer에 의해 단순집계, 조사대상자의 基本屬性에 따른 Cross Check, Communication 變數間的 Correlation, Regression 등을 계산하였다.

## 第二章 知識·態度·實踐(KAP)

### 第一節 知 識

家族計劃 事業의 成功與否는 家族計劃에 關한 知識 또는 여러가지 家族計劃 方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避妊 對象者가 自己에게 適合한 避妊方法을 正確히 알고 있고 가족계획의 必要性을 認識하여 가족계획에 積極的인 態度를 보인다면 이것은 반드시 實踐에 옮겨지리라고 確信할 수 있다. 그러나 知識水準이 態度와 不一致하여 實踐可能性이 낮아지면 所謂 KAP間的 乘離(Gap)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는 우선 家族計劃에 關한 知識水準을 파악하기 위하여 皮임方法에 對한 質問을 하여 正答率을 計算하였다.

#### 1. 家族計劃 用語 認知

問：“家族計劃(피임·산아제한)”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表 2-1. 가족계획 用語 認知度

區 分	N	%
있 다	1,303	97.9
없 다	23	1.8
NR. DK	5	0.3
計	1,331	100

피임方法에 對한 知識水準을 알아보기 前에 먼저 “家族計劃”이란 用語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結果는 全體應答者의 98%가 “가족계획”이란 用語를 알고있었다.

이 水準은 調査對象者를 그 特性에 따라 地域別, 學歷別, 年齡別, 性別로 各各 分類하여 보아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결국 現時點에서 “가족계획”이란 用語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避妊方法에 對한 知識

問 : 다음 피임方法의 使用法을 아는가?

表2-2. 全體로 본 應答率 (%)

方 法	正	誤
먹 는 피 임 약	53.0	47.0
루 프	65.3	34.7
콘 돔	70.0	30.0
경 관 수 술	43.4	56.6
난 관 수 술	55.9	44.1
월 경 주 기 법	39.3	60.7
질 의 사 경	49.5	50.5
平 均	53.8	46.2
事 例 數	1,331	

表2-3. 地域別 正答率 (%)

方 法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농 촌
먹 는 피 임 약	54.1	46.7	57.3
루 프	55.3	59.7	78.3
콘 돔	75.2	61.2	72.5
경 관 수 술	44.8	29.6	53.1
난 관 수 술	68.2	55.4	46.0
월 경 주 기 법	53.2	34.6	31.3
질 의 사 경	62.1	46.7	41.0
평 균	59.0	47.7	54.2
事 例 數	427	399	505

表 2-4. 學歷別 正答率 (%)

方 法	無 學	國 民 學 校	中 學 校	高 等 學 校	大 學 校
먹 는 피 임 약	44.3	52.8	60.4	54.1	51.5
루 프	71.4	73.9	68.6	56.8	50.7
콘 돔	50.7	67.0	72.0	74.5	80.0
경 관 수 술	33.6	42.9	42.5	43.2	50.0
난 관 수 술	40.7	45.7	60.4	66.4	70.4
월 경 주 기 법	17.1	31.2	47.3	44.5	55.2
질 의 사 경	36.4	38.5	46.4	55.0	74.1
평 균	42.0	50.3	55.4	56.4	61.7
事 例 數	140	494	207	220	270

表 2-5. 性別 正答率 (%)

區 分	男	女
먹는 피임약	43.2	62.5
루프	56.1	73.8
콘돔	75.1	65.4
정관수술	50.8	36.4
난관수술	55.2	56.7
월경주기법	35.1	43.4
질외사정	62.8	37.2
평균	54.0	53.6
事例數	639	692

피임方法에 對한 正確한 知識水準을 파악하기 爲하여 Multiple choice型式(三答中 擇一式)의 質問을 하였다.

〈全體〉로 보아 正答率 平均은 54%이다.

그러나 對象者들이 主로 사용하는 方法(참조 第三節 實踐)인 먹는 피임약·루프·콘돔만에 對한 平均値는 63%로 약간 높다.

가장 높은 正答率을 나타낸 피임方法은 70%의 콘돔이며 가장 낮은 것은 월경주기법이다(39%).

역시 그 使用方法이 간단하나에 따라 正答率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地域別〉로 나누어 보면, 「서울中流」 지역이 平均 59%, 「서울下流」 지역이 平均 48%이며 「농촌」이 54%로 中間値를 나타내고 있다.

地域別로 自己平均値를 상회하는 方法들을 살펴보면 「서울中流」에서 콘돔(75%), 난관수술(68%), 질외사정(62%), 「서울下流」에서는 콘돔(61%), 루프(60%), 난관수술(55%)을 들 수 있다.

「서울下流」 지역에서 特異한 點은, 정관수술 方法에 對한 知識이 특히 낮아 30%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全地域에서 最下位 數値로서 결국 서울 下流지역에서 정관수술 方法이 거의 침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證明된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集中的인 弘報와 行政支援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은 루프(78%), 콘돔(73%)의 두 가지 方法에 對한 知識이 뛰어나게 높았다.

다음에서 〈學歷別〉로 관찰하면, 우선 平均値로 보아 學歷이 높아질수록 피임의 方法에 대한 知識 水準도 높아진다. 대개의 方法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루프”는 오히려 逆現象으로 國卒者와 無學者가 가장 높고 大卒者가 제일 낮다. 學歷이 높아질수록 루프使用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性別>로 對比시켜 보면, 男女의 正答率 平均은 거의 같다(54%).  
다만 男女 모두 自己가 주로 사용하는 皮임方法에서 相對方보다 훨씬 높은 正答率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면 男子의 경우 큰돔·질외사정에서, 女子는 먹는 피임약·루프등에서 볼 수 있다.

《“가정의 벗”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

表 2-6. “가정의 벗” 購讀與否에 의한 正答率 (%)

	읽어 본 적 없다	있 다
먹 는 피 임 약	49.9	64.4
루 프	33.2	66.8
큰 돔	67.2	79.9
정 관 수 술	40.5	53.6
난 관 수 술	55.1	58.8
월 경 주 기 법	37.5	45.7
질 외 사 정	47.8	55.4
平 均	47.3	60.7

“가정의 벗”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平均 正答率에 상당한 差異를 보인다 (各各 61%, 47%).

이러한 差는 과연 有意味한 것인가?

이에 대해 Chi-Square test” 方法을 適用시켜 본 결과  $\alpha$ (有意味水準)=0.05에서  $x_0^2=12.59$ ,  $x^2=13$   $x^2 > x_0^2$ 이므로 兩者의 差는 有意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벗”을 읽었으므로 더 많은 皮임지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작은 冊이나 팜프렛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表 2-7. “작은 冊”, “팜프렛” 受領與否에 따른 正答率 (%)

區 分	받아 본 적 없다	자주 받아 보았다
먹 는 피 임 약	48.0	60.7
루 프	60.6	65.2
큰 돔	61.8	84.3
정 관 수 술	35.7	60.7
난 관 수 술	55.3	62.9
월 경 주 기 법	36.8	50.6
질 외 사 정	45.5	61.8
平 均	49.1	63.7

“작은 책”이나 “팜프렛”을 자주 받아 본 사람(61%)은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49%)보다 14%정도 높은 正答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alpha$ (有意味水準)=0.05에서 Chi-Square test 한 結果에 의하면 이 差는 無意味한 것

으로 나타난다.

즉 “자주 받아 본 사람”의 높은 正答率이 반드시 작은 冊이나 팜프렛을 읽어 본 結果라고 볼 수단은 없으며 其他 要因이 作用된 것으로 統計的 해석을 할 수 있다.

## 第二節 態 度

態度라 함은 一般的으로 個人이 접촉하고 있는 世界의 어느 側面에 對한 感情·知覺·認知·動機化 等の 心理作用의 永續的인 태세라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家族計劃이라는 限定된 狀況에만 適用되는 태도로서

첫째, 理想的 子女數에 對한 태도

둘째, 가족계획의 必要性 認識度

셋째, 가족계획에 對한 신뢰도만을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 1. 子女數에 對한 態度

#### 가. 現存 子女數

表 2-8. 全體로 본 現存 子女數

구 분	名
아 들	1.48
딸	1.43
計	2.91

表 2-9. 地域別 現存 子女數

구 분	서울 中流	서울 下流	농 촌
아 들	1.24	1.40	1.74
딸	1.17	1.42	1.75
計	2.41	2.82	3.49

表 2-10. 學歷別 現存 子女數

구 분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아 들	1.89	1.70	1.47	1.24	1.13
딸	1.97	1.59	1.31	1.25	0.98
計	3.86	3.29	2.78	2.49	2.11

#### 나. 더 願하는 子女數



表 2-11. 全體로 본 더 願하는 子女數

구	분	計
더 願하지 않는다		69.4%
더 願한다		30.6%
더 願하는 子女數	아	0.32名
	들	0.17名
	計	0.49名
總子女數(現存 子女數+더 願하는 子女數)		3.40名

全體로 보아 現存 子女數 2.91名의 狀態에서 子女를 더 願치 않는 사람이 約 70%를 차지하고 있다(總 1,331名中 923名).

이와 같이 子女를 더 願치 않는 사람이 많다는 事實은 가족계획 實踐對象으로 끌어들이 對象者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들 923名中 現在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子女를 더 願치 않는 923名中 現在 피임 실천中인 사람은 701名 (75.9%) 뿐이며 나머지 222名 (24.1%)은 子女를 더 願치 않으면서도 피임을 하지않고 있다. 이들 222名中 196名 즉 88.3%는 앞으로 가족계획을 實施할 계획이며 不過 11.7% (26名)만이 전혀 피임 意思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子女를 願치 않으면서 現在 피임을 실시하지 않는 이들을, 특히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弘報 啓蒙하여 가족계획 실천 隊列로 유도하느냐 하는 課題가 남아 있다.

反面 子女를 더 願하는 사람(408名) 中에는 17.6%가 터울 조정등의 方法으로 피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더 願하는 子女數를 아들·딸로 對比해 보면 아들을 딸보다 約 二倍정도 더 願하고 있다.

表 2-12. 地域別 더 願하는 子女數

구	분	서울 中流	서울 下流	농 촌
더 願치 않는다		72.6(%)	68.7(%)	67.2(%)
더 願한다		27.4	31.3	32.8
더 願하는 子女數	아	0.24(名)	0.35(名)	0.37(名)
	들	0.20	0.17	0.14
	計	0.44	0.52	0.51
總子女數(現存 子女數+더 願하는 子女數)		2.85	3.34	4.0

現存 子女數가 가장 적은 「서울中流」(2.41名)가 子女를 더 願치 않는 比率이 73%로 제

일 높으며 서울 下流와 농촌은 거의 비슷한 水準이다.

總 子女數는 농촌이 4.0名으로 “둘만 낳기” 目標보다 두배나 많으며 서울中流는 2.85名으로 目標 子女數인 2名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아들·딸 區別말자”는 口號는 地域別로 어느 程度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울中流」는 더 願하는 子女數로 보아 아들(0.24名), 딸(0.20名)의 差異가 0.04名에 不過하여 목표가 거의 달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서울下流」는 아들 (0.35名)을 딸 (0.17名)보다 두배, 「농촌」은 2.6배 정도(아들 0.37名, 딸 0.14名)나 더 願하고 있다.

男兒尊重 思想이 아직도 특히 농촌지역에 強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서울中流」지역에 나마 “둘만 낳기” “아들·딸 區別 낳기” 목표가 實現段階에 들어서고 있다는 事實은 참으로 고무적인 現象이다.

## 2. 家族計劃의 必要性 認識

家施計劃의 必要性을 어느 程度나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個人的 次元에서 “宅의 形便上 가족계획을 해야 하는가?”와 國家的 次元에서 “우리나라의 形便上 가족계획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表 2-13. 가족계획의 必要性 認識度 (%)

區 分	國 家 的 次 元	個 人 的 次 元
반드시 해야 한다	74.5	66.8
하는 것이 좋다	21.1	17.3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3.3	5.8
안 하는 것이 좋다	0.4	3.6
할 필요가 없다	0.7	6.7
事 例 數	1,331	1,331

國家的 次元, 個人的 次元에서 모두 가족계획의 必要性은 絶對的으로 인정되고 있다.(各各96%, 84%)

우리나라 形便上 가족계획이 必要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1%에 不過하다.

가족계획에 對한 이와같은 높은 認識度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家族計劃에 對한 신뢰도

우리는 지금까지의 가족계획 弘報活動을 通하여 子女를 알맞게 낳아 행복한 家庭을 이루기 爲한 지름길은 가족계획 뿐임을 力說하여 왔다. 즉 가족계획을 通하여 不必要한 임신을 막을 수 있다고 계몽하여 왔다.

그러면 現時點에서 임신을 막기 爲한 方法으로서의 가족계획은 어느 만큼 신뢰 받고 있는가? 當初 設問에서는 가족계획으로 임신을 “막을 수 있다” “없다”를 5段階로 나누어 물었

表 2-14. 가족계획에 대한 신뢰도 百分比

區 分		막을 수 있다	막기 힘들다
全 體		70.0	29.0
地 域 別	서울 中 流	78.6	21.2
	서울 下 流	62.5	35.7
	農 村	68.8	31.0
年 齡 別	20 代	64.2	33.9
	30 代	70.5	29.4
	40 代	75.1	24.4
性 別	男	77.1	22.5
	女	63.5	35.5
學 歷 別	無 國 卒	63.6	34.3
	中 卒	63.8	34.2
	高 卒	64.3	34.3
	大 卒	76.4	23.6
	大 卒	83.7	16.0

으나 여기서는 理解와 便宜를 爲하여 “있다” “없다”로만 區分하기로 하였다.

全體로 보아 “막을 수 있다”가 70%, “막기 힘들다”가 29%나 된다. 위에서 본 가족계획의 必要性 認識度에 比하여 가족계획에 對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地域別로 보면 농촌이 오히려 서울下流지역보다 높으며, 연령別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性別로는 男子가 女子보다, 學歷別로는 學歷이 높아질수록 가족계획에 對한 신뢰도는 높아진다.

### 第三節 實 踐

가족계획 實踐에 關해서는 現在, 過去, 未來로 나누어 그 實踐與否 및 中斷狀態, 實踐計劃 등을 파악하였으며 피임실천을 正確히 計算하기 위하여 使用方法까지 아울러 물었다.

#### 1. 現 在

(避妊實踐 與否 및 使用方法)

《全體》

表 2-15. 피임 實踐 與否

한 다		안한다	
N	%	N	%
773	58.0	558	42.0

表 2-16. 使用 方 法

方 法	%
먹 는 피 입 약	24.3
루 프	20.1
큰 돔	17.3
정 관 수 술	9.3
난 관 수 술	5.4
월 경 주 기 법	14.7
질 의 사 정	5.0
기 타	3.0
事 例 數	(773)

表 2-17. 地域別 避妊實踐 與否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農 村
한 다	72.2	50.9	51.9
안 한 다	27.8	49.1	48.1
事 例 數	(427)	(399)	(505)

表 2-18. 使用 方 法

方 法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農 村
먹 는 피 입 약	14.6	34.0	28.2
루 프	7.8	24.1	34.0
큰 돔	26.3	10.8	11.8
정 관 수 술	10.4	5.4	11.1
난 관 수 술	9.4	3.4	2.3
월 경 주 기 법	23.1	13.8	5.7
질 의 사 정	6.8	4.4	3.4
기 타	1.3	2.5	2.7
事 例 數	(308)	(203)	(262)

表 2-19. 學歷別 避妊實踐 與否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한 다	52.9	49.4	55.6	60.0	77.0
안 한 다	47.1	50.6	44.4	40.0	23.0
事 例 數	(140)	(494)	(207)	(220)	(270)

表 2-20. 學歷別 使用方法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먹	는 피 임	약	25.7	33.2	27.8	28.3	9.1
루		프	37.8	30.3	27.0	10.6	7.2
큰		덤	6.8	10.7	12.2	16.7	32.2
정	관 수	술	9.5	7.4	10.4	11.4	9.6
난	관 수	술	2.7	4.1	4.3	5.3	8.7
월	경 주 기	법	5.4	7.4	13.9	18.2	25.0
질	외 사	정	5.4	4.5	3.5	3.8	7.2
기		타	4.1	2.5	0.9	3.0	7.2
事	例 數		(74)	(244)	(115)	(132)	(208)

表 2-21. 年齡別 避妊實施 與否

區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한	다	30.0	61.6	77.9	84.9
안	한 다	70.0	38.4	22.1	15.1
事	例 數	326	652	316	33

表 2-22. 使 用 方 法

區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먹	는 피 임	약	26.5	25.4	22.3	15.1
루		프	19.4	21.4	20.8	15.1
큰		덤	28.6	17.7	13.4	6.1
정	관 수	술	7.1	9.2	10.2	9.1
난	관 수	술	3.1	4.0	8.1	9.1
월	경 주 기	법	10.2	16.5	13.4	15.1
질	외 사	정	3.1	4.0	7.0	9.1
기		타	2.0	1.8	5.0	21.3
事	例 數	98	401	246	28	

우선 〈避妊 實踐率〉을 보면, 全體的으로 58%가 現在 實踐中이다. 이처럼 놀라운 정도의 높은 실천율은 지금까지의 어떤 調査 報告書에서도 볼 수 없었던 數值이다. 앞으로 KAP 調査가 이루어지면 이 資料를 더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서울下流」지역과 「農村」지역은 各各 51%, 52%로 비슷한 水準이며 「서울中流」지역이 72%라는 놀라운 실천율을 나타내고 있다.

學歷別로 보면, 大卒者와 高卒者사이에서 큰 분수령이 나타나 大卒者 (77%)가 高卒者 (60%)보다 17%나 높은 실천율을 보이며, 年齡別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실천율이 높아져 50대가 무려 85%의 실천율을 보이고 있으나 對象者가 33名뿐이므로 신뢰도가 낮고 40대가 78%로 學歷別 分布에서의 大卒者보다도 높은 水準이다.

다음에 <使用方法>을 보면, 全體的으로 먹는 피임약 (24%), 루프 (20%), 콘돔 (17%)이 주로 使用되고 있으나 地域別로 분류하면 그 樣相이 달라진다. 즉 「서울中流」는 콘돔 (26%)과 월경주기법(23%)이 主流를 이루는 反面 「서울下流」는 먹는 피임약 (34%)과 루프 (24%), 「農村」은 루프 (34%)와 먹는 피임약 (28%)이 主宗을 이룬다.

이러한 現象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家族計劃의 心理學的 探索”(1972年)에서 나타났던 피임方法 <서울中流의 경우 먹는 피임약 (25%), 루프 (20%), 콘돔 (10%)>과 비교할 때 특히 「서울中流」의 피임方法의 Pattern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學歷別로 보면, “피임實踐率”에서와 마찬가지로 高卒者 以下는 거의 비슷한 Pattern이나 大卒者에서 樣相이 크게 바뀌어 콘돔 (32%), 월경주기법 (25%)이 부각되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거의 비슷한 水準이나 20代에서 콘돔이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2-23. 現存 子女數別 避妊實踐 與否

子女數別	實踐與否		事例數
	한	다	
0	17.0	83.0	94
1 男	34.3	65.7	105
1 女	18.2	81.8	99
2 男	69.5	30.5	82
1 男 1 女	67.9	32.1	140
2 女	38.5	61.5	39
3 男	67.5	32.5	40
2 男 1 女	84.1	15.9	138
1 男 2 女	63.0	37.0	108
3 女	35.7	64.3	14
4 男	69.2	30.8	13
4 女	50.0	50.0	12

現存 子女數에 따른 避妊 實踐 與否를 보면 “2男 1女”에서 가장 높은 실천율(84%)을 보이며 다음이 2男 (70%), 4男 (69%), 1男 1女 (68%)의 順이다. 아직도 “2男 1女”를 理想的인 子女數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으며 “男兒尊重思想”이 그대로 存在함을 알 수 있다. “子女가 없는 경우” 17%의 실천율에서 첫아기를 낳아 “1女”가 되면 실천율에 變化가 없으나 (18%), “1男”이 되면 실천율이 2배로 증가된다(34%).

## 2. 過 去

現在 非實踐者의 避妊經驗 有無 및 使用方法

表 2-24. 避妊 經驗 有無

區	分	N	%
있	다	136	24.4
없	다	417	74.7
NR·DK		5	0.9
계		558	100.0

表 2-25. 使用 方法

區	分	%
먹	는 피 임 약	47.1
루	프	34.6
콘	돔	13.2
정	관 수 술	0
난	관 수 술	0
월	경 주 기 법	3.7
질	외 사 정	0.7
事	例 數	136

避妊을 中斷한 理由

表 2-26. 피임 中斷 理由

區	分	%
피임 方法에서 오는 不作用 때문에		47.8
子女를 더 낳으려고		30.1
피임에 실패해서		8.1
아들을 더 낳으려고		12.5
싫증이 나서		0.7
事	例 數	136

現在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람(558名)의 過去 避妊 經驗 有無를 追跡하였다, 現在 非實踐者의 75%가 전혀 피임을 한 경험이 없고 나머지 4분의 1만이 피임中斷者이며 이들의 過去 避妊方法은 먹는 피임약(47%)과 루프 (35%)가 대부분이다.

피임을 中斷한 理由를 보면 48%가 “不作用 때문”임을 호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43%는 “子女 또는 아들을 더 낳으려고” 피임을 中斷하였다.

不作用 또는 風聞에 관한 內容은 第三章 第三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피임 無經驗者의 경우 지금까지 피임을 하지 않았던 理由를 보면 대부분 子女를 더 낳기

(無經驗者의 경우)

表 2-27. 지금까지 피임을 하지 않은 理由

區	分	%
피임방법을 몰라서		3.8
피임의 부작용이 두려워서		3.4
아이를 더 낳으려고		56.4
아들을 원해서		21.3
임신되는대로 낳다보니까		4.5
티올 조절이 자연적으로 잘 돼서		8.5
피임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0.5
건강이 나빠서		0.5
기타		1.2
事	例	數
		422

위해서(56%)거나 아들을 더 願해서(21%)이며, 피임방법을 몰라서(4%)나 不作用이 두려워서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 3. 未 來

(中斷者의 경우) 앞으로 다시 가족계획을 實施할 생각은?

表 2-28.

區	分	N	%
있	다	115	84.6
없	다	21	15.4
計		136	100.0

(無經驗者의 경우) 앞으로 피임을 할 생각이 있는가?

表 2-29.

區	分	N	%
있	다	393	93.1
없	다	29	6.9
計		422	100.0

그러면 現在 非實踐者의 未來計劃은 어떠한가?

中斷의 경우에는 85%가, 無經驗者의 경우에는 93%가 앞으로 家族計劃을 實施할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現在의 非實踐者中에 앞으로도 실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不過 9%뿐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이번 調查를 통하여 對象者들이 家族計劃에 對하여 積極적인 贊成과 支持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좋은 터전위에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계몽하고 이끌어주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줄 것인가?

### 第三章 Communication

家族計劃 弘報啓蒙(Communation)은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족계획 實踐對象者 各個人에게 家族計劃의 意義와 方法, 知識, 서비스 場所 등을 알려줌으로써 各者가 家族計劃의 참뜻을 理解하고 自發的으로 實踐할 수 있도록 啓導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좀 더 높은 次元과 넓은 範圍에서의 輿論造成을 위한 啓蒙活動이다.

즉 폭발적인 人口增加, 資源枯渴, 環境破壞로 因한 人類生存危脅등의 보다 根本的인 問題를 社會指導層에게 周知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弘報活動(Communication)의 가장 根本的인 要素는 어떤 媒體(Media)를 通하여, 무엇을 (內容), 누구에게 (對象) 傳達하느냐하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의 3가지 基本要素中 媒體(Media)와 對象(Audience)에 重點을 두고 Family Planning과 Communication의 關係를 分析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家族計劃에 關한 弘報活動을 遂行하기 爲한 手段으로 各種의 媒體(Media)가 利用되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直接 對象者의 얼굴을 對하는 對人接觸方法(Personal Communication)과 傳達媒體를 利用하여 同時에 많은 사람들에게 傳하는 Mass Communication으로 區分된다.

우리는 여기서 Family Planning 弘報活動에 많이 利用되고 있는 媒體로서 Personal Communication은 계몽원, 이웃, 친구, 친척, 군대(예비군), 학교(선생), 직장동료, 어머니 교실, 의사, 간호원, 약사를, Mass Communication은 신문, 잡지, 책, 팸플렛, 포어, 포스타, 라디오, TV, 영화 등을 택하였다.

위에서 열거된 媒體들은 第一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Pilot Study의 結果를 參照하여 선택된 것이다.

다음의 對象은 그 集團別 特性(Characteristics of various group)에 따라 地域別, 學歷別, 性別, 年齡別로 分類하였다.

#### 第一節 Mass Communication

##### 1. 一般露出 (Mass Media 利用度)

여기서는 調查對象者 (1,331名)의 Mass Media 利用度を 對象者의 集團別 特性에 따라 全體, 地域別, 學歷別, 性別로 알아보기로 한다.

《全體》

表 3-1. 對象者 全體의 Mass Media 利用度

Media別			利 用 率			
			매일 또는 자주	가 끔	計 (事 例 數)	
신	간	문	49.8	17.3	67.1 (880)	
주		지	11.1	40.5	51.5 (686)	
월		지	15.8	33.1	48.9 (649)	
라		디	오	61.1	30.5	91.5 (1,218)
T		V	39.1	29.6	68.7 (913)	
영	화	7.5	36.6	44.1 (585)		

《地域別》

表 3-2. 地域別 Mass Media 利用率 (%)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農 村	
신	간	문	98.3	69.4	36.2	
주		지	77.2	62.1	21.3	
월		지	81.9	47.1	21.9	
라		디	오	9.8	92.9	90.8
T		V	97.4	61.1	50.2	
영	화	64.4	46.1	25.3		
平 均			85	63.1	41.0	

《學歷別》

表 3-3. 學歷別 Mass Media 利用率 (%)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신	간	문	20.7	42.5	81.2	93.2	99.3	
주		지	16.4	30.4	57.0	80.5	80.7	
월		지	17.9	22.5	56.5	74.5	85.9	
라		디	오	87.9	91.3	93.2	90.0	93.7
T		V	39.3	50.4	70.5	91.4	97.0	
영	화	15.7	30.2	47.3	52.3	75.2		
平 均			33.0	44.6	67.6	80.3	88.6	

《性別》

表 3-4. 性別 Mass Media 利用率 (%)

區 分			男	女	
신	간	문	76.2	56.8	
주		지	59.8	44.1	
월		지	50.3	43.8	
라		디	오	94.8	88.6
T		V	71.9	65.6	
영	화	54.2	34.8		
平 均			67.9	55.6	

應答者全體로 보면 라디오 청취율이 92%로 다른 Media에 比하여 壓倒的으로 높다.

다음은 TV(69%)와 신문(67%)이 거의 비슷한 水準이다. 그러나 이 順序는 地域別로 나누어 보면 確然하게 달라진다.

「서울中流」의 경우, 신문(98%)과 TV(97%)가 오히려 라디오(91%) 보다 높은데 비해 「서울下流」는 라디오가 93%로 단연 높으며, 다음이 신문(69%), TV(61%)의 順이며 「農村」은 라디오(91%), TV(50%), 신문(36%)의 順이다.

地域別 Media利用率 平均은 「서울中流」 85%, 「서울下流」 63%, 「農村」 41%로 各各 一定한 間격의 差異를 보이고 있으나 「農村」의 경우 라디오 利用率이 平均値의 2倍 이상 높아 Media 中の 總아임을 알 수 있으며 TV도 豫想보다 높아 50%나 된다. 그러나 신문은 농촌에서 거의 읽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學歷別 Media 利用率을 보면, 우선 平均値로 볼 때 學歷이 높아질 수록 Mass Media 利用率도 높아진다. 이러한 傾向은 신문의 경우 가장 뚜렷이 나타나며 大卒者는 거의 100%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學歷에 關係없이 거의 비슷한 水準을 보이고 있는 Media는 라디오로서 90% 水準을 上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라디오가 大衆의 ㅁ을 다시 한번 ㅁ볼 수 있다.

性別로 對比해 보면, 모든 Media에서 男性이 女性보다 利用率이 높다. (平均 12% 정도)

## 2. Family Planning露出 (Family Planning 內容 記憶度)

FP露出이란 對象者들이 Mass Media 利用 또는 접촉 後에 家族計劃에 關한 內容을 어느 程度 기억하고 있는지, 記憶한다면 어떠한 內容을 主로 記憶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爲한 것이다. 그 記憶程度와 內容은 물론 調查當時의 狀態이지만, 이를 Media別, 對象者別로 對比시켜 ㅁ으로써 보다 더 效率的인 弘報活動을 爲한 資料를 提示해 보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注意할 點은, 이와같은 比較를 爲하여는 各 Media에 投入된 費用과 時間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對象者들의 FP內容 記憶程度를 Output로 보고, 이러한 結果를 얻기 위한 家族計劃 關係部署의 弘報活動(投入된 費用·時間 等)을 Input로 보아 Input對 Output 比率를 고려한 Media 別 比較가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이에 關하여는 다음 章 (Media別 效率性 比較)에서 상세히 言及할 豫定이며 여기서는 ㅁ

《全體》

表 3-5. Mass Media 接觸後의 記憶度

區	分	기억남는것없음	FP 장려 내용	피입 방법	FP 사업 내용	事例數
신	문	31.8	41.6	18.2	8.1	880
주	간지	41.5	28.4	24.9	5.4	686
월	간지	34.7	29.1	31.1	5.5	649
라	디오	21.1	69.5	5.5	3.9	1,218
T	V	36.7	55.0	4.5	3.7	913
영	화	52.8	35.7	5.3	7.0	585

수히 Output 側面에서만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記憶도가 가장 높은 것은 라디오로서 청취자의 約 80%가 家族計劃에 關한 弘報內容을 기억하고 있다. 다음이 70%의 新聞, 65%의 月刊誌의 順이다. 가장 낮은 것은 영화로 利用者의 48%만이 FP 홍보내용을 기억한다. 여기서의 記憶도는 엄밀히 얘기할 때 앞에서 言及한 Media 利用率과는 直接的인 關聯性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記憶도는 利用率에 關係없이 調查當時의 Media 利用者만을 對象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記憶內容別로 보면 라디오, TV, 영화에 의해서는 단순한 FP장려내용을 주로 기억하고 월간지, 주간지 등에 의해서는 具體的인 피임方法을 주로 기억하고 있다.

역시 Media別 空間性, 時間性, 速度, 持續性 等の 特性에 따라 記憶하는 內容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地域別》

表 3-6. 地域別 記憶度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농 촌
신	문	76.7	47.3	78.7
주	간	61.5	46.8	78.7
일	간	68.3	53.2	79.3
라	디	72.2	70.9	91.1
T	V	73.6	43.9	64.6
영	화	52.2	36.6	55.5
평	균	67.4	49.8	74.7

地域別로 보면 農村이(記憶度 平均 75%) 제일 높고 서울下流는 훨씬 떨어져 50%에 不 過하다.

農村은 TV를 除外하고는 모든 Media에서 단연 높은 記憶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라 디오에서는 91%라는 높은 記憶도를 나타내고 있다. 農村이 이와같이 他地域보다 높은 記憶도를 나타내는 理由는 무엇일까?

첫째, 복잡하고 여러가지 자극이 많은 서울生活에 비해 비교적 단조롭고 外部로부터 어 느정도 격리된 農村生活은 라디오 등이 餘暇善用을 위한 唯一한 오락기구이므로 그 Program 內容의 흡수력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다음 第二節의 “避妊에 關한 知識獲得 및 避妊 意思決定 時 영향받은 Media”에 서도 言及할 豫定이지만, 農村은 他地域에 비해 “계몽원”의 影響을 훨씬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계몽원으로부터 일단 들어본 FP 內容을 다시 Mass Media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記憶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Media利用率이 他地域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지는 農村 지역이 FP內容 記憶도가 가장 높다는 事實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농촌지역에서의 Mass Media를 통한 弘報活動이 결코 他地域보다 非效率的인 아님을 알 수 있다.

表 3-7. 新聞 읽은 後 記憶에 남는 것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農 村
기억 남는 것 없음	23.3	52.7	21.3
FP 장려 내용	43.8	28.2	56.8
피입 방법	21.2	13.7	18.0
FP 사업 내용	11.7	5.4	3.8
事 例 數 (購讀率)	420 (98.3)	277 (69.4)	183 (36.2)

農村이 新聞購讀率은 가장 낮으나 (36%) 記憶度는 79%로 제일 높다. 이에 비해 서울下流지역은 記憶度가 훨씬 떨어져 47%밖에 안된다. 다만 記憶하는 內容은 세地域 모두 FP 장려에 關한 것이 가장 높아 다른 內容의 두倍以上이나 된다. 여기서 Media 利用率과 弘報內容 記憶度와의 積은 과연 어떤 意味를 뜻하는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신문구독율과 기억도와의 積은, 신문을 통해 傳達된 FP弘報內容을 記憶하는 住民比率을 나타내는 數值가 된다. 신문의 경우 地域別로 이 數值를 計算해 보면 서울中流 85, 서울下流 32, 農村이 28이다.

따라서 「서울中流」住民의 85%는 신문을 통하여 FP 홍보내용을 읽고 記憶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他地域에 비해 約3倍 정도나 높은 數值이다.

서울 中流地域을 사로 잡을 수 있는 Mass Media는 역시 新聞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지, 월간지에서도 亦是 農村이 購讀率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으나 記憶度는 가장 높다.

表 3-8. 週 刊 誌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農 村
기억남는 것 없음	38.5	53.2	21.3
FP 장려 내용	34.5	17.2	35.2
피입 방법	22.4	25.4	32.4
FP 사업 내용	4.5	4.0	11.1
事 例 數 (購讀率)	330 (77.2)	248 (62.1)	108 (21.3)

비록 購讀者 數는 적으나 購讀할 경우 그 內容을 빠짐없이 철저히 읽는데 그 原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表 3-9. 月 刊 誌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農 村
기억 남는 것 없음	31.7	46.8	20.7
FP 장려 내용	30.0	22.3	37.8
피임 방법	32.3	27.1	34.2
FP 사업 내용	6.0	3.7	7.2
事 例 數 (購讀率)	350 (81.9)	188 (47.1)	111 (21.9)

記憶內容으로는 FP 장려내용과 피임方法에 關한 것이 세 地域 모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3-10. 라디오를 들은 後 記憶에 남는 것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農 村	
기억 남는 것 없음	27.8	29.1	8.9	
FP 장려 내용	61.3	58.0	83.7	
피임 방법	5.4	6.2	5	
FP 사업 내용	5.4	4.0	2.4	
事 例 數	388	371	459	
聽 取 率	거 의 매 일	50.6	72.0	61.4
	가 끔	40.3	21.1	29.6

라디오 청취율만은 세 지역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每日청취率”은 서울 下流지역이 단연 높다.

記憶도는 역시 農村이 91%로 壓倒的으로 높으며 결국 農村地域 住民이 83% (청취율 91%×記憶도 91%=82.8)는 라디오를 통해 가족계획에 關한 弘報內容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같은 方法으로 계산한 서울中流와 下流지역의 數値는 各各 65, 66이다.

表 3-11. TV 시청 後 記憶에 남는 것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농 촌	
기억 남는 것 없음	26.4	56.1	35.4	
FP 장려 내용	63.9	35.7	58.7	
피임 방법	4.6	4.9	3.9	
FP 사업 내용	5.0			
事 例 數	416	244	255	
視 聽 率	거 의 매 일	80.4	29.4	11.9
	가 끔	16.9	31.9	38.5

農村과 他地域과의 差異는 約 20%에 不過하여 表 3-7의 新聞에 比하여 지역別 差는 적으나 역시 농촌지역에서의 戰略的 Mass Media는 라디오라고 할 수 있다.

表 3-12. 映畫 鑑賞 後 記憶에 남는 것

區 分		서울 中 流	서울 下 流	농 촌
기억 남는 것 없음		47.8	63.4	44.5
FP 장려 내용		42.3	24.6	37.5
피입 방법		4.0	6.0	7.0
FP 사업 내용		5.8	6.0	10.9
事 例 數		274	183	128
鑑 賞 率	한달에 한두번이상	7.8	14.1	2.0
	가 금	56.5	31.9	23.4

6가지 Mass Media 中 농촌의 記憶度가 서울中流보다 낮은 것은 오직 TV에서 뿐이다.

그러나 “每日 視聽率”을 보면 12%에 不過하므로 記憶度가 낮은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視聽率에 比해 記憶度가 높은 편이다.

映畫는 자주 보는 사람도 全體의 7.5%밖에 되지 않으며 그 記憶度도 47%정도로 Mass Media 中 가장 낮다. (表 3-1, 3-5 參照)

表 3-13. 學歷別 記憶度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신 주 월 라 T 영	문 지	51.7	54.8	66.0	68.3	82.1
	간 지	47.8	51.3	59.3	58.7	63.8
	간 지	36.0	62.0	63.2	65.9	72.4
	다 오	79.7	81.6	85.0	74.2	72.8
	V	51.8	52.6	65.7	65.2	73.3
	화	40.0	34.5	46.9	52.0	54.7
平 均		51.2	56.1	64.4	64.1	69.9

表 3-14. 性別 記憶度

區 分			男	女
신 주 월 라 T 영	간 간 다	문 지	70.6	65.4
		지 지	60.1	56.6
		지 지	59.2	72.3
		오 오	80.1	77.6
		V	61.2	65.6
		화	53.3	38.2
平 均			64.1	62.6

學歷이 높을수록 記憶度도 높아진다. 그러나 無學歷者와 大卒者의 記憶度 差異는 19%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特異한 것은 Radio의 記憶度로서 高卒・大卒者보다 오히려 國卒・中卒者의 記憶度가 約 10%정도 높은 點이다. 表 3-10에서 라디오가 농촌지역에서의 戰略的 Media임이 밝혀진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라디오가 高學歷者보다는 低學歷者를 爲한 (庶民을 위한) 戰略的 武器임을 發見할 수 있다. 男女別 記憶度는 別差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 第二節 Media 別 Family Planning의 寄與度

家族計劃 弘報活動을 遂行하기 위한 手段으로 各種 Media가 利用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Media는 家族計劃 事業 遂行에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었으며 어느 程度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또한 Media別로 家族計劃 事業에 對한 寄與度는 얼마나 되며 對象 集團이 달라짐에 따라 어떻게 變하는가? 이러한 問題를 풀어나가기에 앞서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것은 家族計劃 事業의 概念規定問題이다.

家族計劃 事業이라고 하면 그 範圍가 대단히 넓은 概念이나 여기서는 家族計劃 事業을 意思決定과 FP 채택의 心理的 過程別로 나누어 各 過程에 미친 各 Media別 影響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의 各 過程은 1955年 美國의 農村 社會學會에서 처음으로 試圖된 다음 分類를 利用하였다.

### a. Awareness 단계

새로운 아이디어가 존재한다는 事實을 처음 대한다.

### b. Interest 단계

새로운 아이디어에 關心을 가지고 그 內容에 關한 情報를 수집하는 過程

### c. Evaluation 단계

수집된 情報에 對한 評價단계

### d. Trial 단계

일단 시험 삼아 한번 써보는 단계

### e. Adoption 단계

한번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거나 측근에서 인정해 줄 때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계

以上の 5段階中에서 우리는 第一단계(Awareness)와 第5단계(Adoptioin)를 택하여 第1단계는 “知識 획득 경로” 즉 “家族計劃이란 말을 처음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가?”하는 問項으로, 第5단계는 “FP實踐決定” 즉 “처음 FP實踐決定時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들었는가?”하는 問項으로서 FP事業 過程에 미친 各 Media別 寄與度 (影響력)를 測定해 보고자 한다.



## 1. 知識 獲得

(가족 계획이란 말은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가?)

《全體》

表 3-15. 最初の 情報源

區 分	N	%	區 分	N	%
<u>Mass Communication</u>		<u>35.8</u>	<u>Personal Communication</u>		<u>61.3</u>
신 문	175	13.2	계 몽 원	543	40.8
라 디 오	131	9.9	이 웃, 친 구, 친 처	113	8.5
책	83	6.3	군 대 (예비군)	50	3.8
잡 지	43	3.3	학 교(선생)	49	3.7
텔 레 비 전	23	1.8	의 사	29	2.2
팜 프 렛	6	.5	직 장 등 료	20	1.6
주 간 지	5	.4	어 머 니 교 실 등	17	1.3
가 정 의 벗	2	.2	간 호 원	2	.2
포 어 · 포 스 터	1	.1	약 사	2	.2
영 화	1	.1			

“家族計劃”이란 用語를 알게 된 徑路를 살펴보자. 크게 나누어 볼 때 Mass Communication과 Personal Communication의 比率은 約 4:6이다.

全 Communication 手段中 뛰어나게 높은 것은 “계몽원”으로서 무려 41%를 占하고 있어 Mass Communication 合計 36%보다 5%나 높다.

《地域別》

表 3-16. 地域別 最初の 情報源

區 分	도 시 中 流	도 시 下 流	農 村
<u>Mass Communication</u>	<u>262(61.7)</u>	<u>135(34.4)</u>	<u>73(14.6)</u>
신 문	128(30.0)	35(8.8)	12(2.4)
잡 지	26(6.1)	8(2.1)	9(1.8)
책	46(10.8)	19(4.8)	18(3.6)
라 디 오	38(8.9)	62(15.6)	31(6.2)
텔 레 비 전	19(4.5)	4(1.1)	0
기 타	5(1.4)	7(2.0)	3(0.6)
<u>Personal Communication</u>	<u>153(35.4)</u>	<u>250(61.9)</u>	<u>422(83.4)</u>
계 몽 원	47(11.1)	150(37.6)	346(68.6)
의 사	16(3.8)	9(2.3)	4(.8)
학 교(선생)	37(8.7)	6(1.6)	6(1.2)
군 대(예비군)	3(.8)	12(3.1)	35(7.0)
이 웃 · 친 구 · 친 처	41(9.7)	50(12.6)	22(4.4)
기 타	9(2.3)	23(6.0)	9(1.8)
NR, DK 비 해 당	12(2.9)	14(3.7)	10(2.0)
Total	427(100.0)	399(100.0)	505(100.0)

Mass Communication만을 보면 신문(13%), 라디오(10%), 책(6%)의 順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며 (여기서의 冊은 주간지, 월간지 등의 잡지 以外的 單行本을 말한다) Personal Communication 中에는 계몽원 外에 별로 두드러진 Media가 없고 “이웃·친구·친척”이 9%로 나타날 뿐이다. 地域別로 나누어 보면 Media別 寄與度는全體로 볼 때 비례가 많이 달라진다.

Mass Communication과 Personal Communication의 比率는 도市中流가 6:4인데 비해 도시 下流는 反對로 4:6, 농촌은 그 差가 더욱 커져 2:8로 벌어진다.

「도市中流」에서의 특징은 新聞의 役割이 크다는 것이다. 신문은 무려 30%로서 전 Personal Communication(35%)과 거의 비슷하며 餘他 Media의 3倍 以上에 해당되는 影響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문 다음으로는 계몽원 (11%), 책 (11%), 이웃·친구·친척 (10%), 라디오 (9%)의 順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계몽원의 役割이 다른 地域보다는 미약하지만 Personal Communication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보아 도市中流地域에서의 계몽원의 役割도 결코 無視할 수는 없다고 본다.

「도시下流」에서는 계몽원이 38% leading Media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으며 다음은 라디오(16%), 이웃, 친구, 친척(13%)등이 된다. Mass Media中에서는 라디오의 影響력이 두드러진다.

「農村」에서는 계몽원의 影響력이 壓倒的으로 높다(69%). 계몽원이 뛰어나게 높기 때문에 다른 Media는 아주 보잘것 없이 되었으며 特記할 點은 예비군이 7%로 다른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예비군 教育時間中の 家族計劃 教育이 어느정도 主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에서의 Mass Communication의 役割은 아주 미약하여 15%에 不過하며 따라서 라디오의 役割도 6%로 아주 저조하다.

表 3-6에 依하면 농촌지역 住民의 “라디오 記憶度”는 91%이며 表 3-22에서도 Output 83으로 단연 높게 나타나나 실제 “知識獲得” 過程에서는 寄與度가 아주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結果는 Media利用의 先後關係 즉 어떤 Media를 通하여 弘報活動을 먼저 始作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촌지역에서 FP弘報活動을 始作할 때 계몽원을 먼저 利用하였기 때문에 라디오 등 다른 Media의 影響력이 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學歷이 높아질수록 Mass Communication의 影響력은 점차 커지며 反對로 Personal Communication의 影響력은 작아진다. 이러한 傾向은 “신문” “책” “계몽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신문”은 大卒者의 경우 다른 Media 보다 3倍 以上 높은 反面에 “계몽원”은 無學者에서 高卒者까지는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大卒者의 경우에는 “라디오”와 함께 最下位로 되어 있다.

《學歷別》

表 3-17. 學歷別 最初의 情報源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Mass Communication	14.9	19.7	31.9	48.6	60.9
신 문	1.4	3.8	8.2	17.7	36.3
책	1.4	2.4	6.8	8.5	13.3
라 디 오	10.0	10.7	10.1	13.2	5.2
T V	2.1	2.8	6.9	9.2	11.1
Personal Communication	78.7	77.7	66.1	49.3	37.2
계 몽 원	65.0	58.5	44.9	25.0	5.6
학 교(선생)	0	0	0.5	5.0	13.7
이웃·친구·친척	7.9	9.3	10.1	7.3	7.0
기 타	5.8	9.9	10.6	12.0	5.9
NR, DK 비 해 당	6.4	2.6	2.0	1.9	1.9
事 例 數	140	494	207	220	270

大卒者에게는 계몽원의 영향력이 없다는 事實을 확인할 수 있다.

2. FP實踐 決定

(처음 FP實踐 決定時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들었는가?)

《全體》

表 3-18. FP實踐 決定時의 情報源

區 分	%	區 分	%
Mass Communication	22.4	Personal Communication	77.6
신 문	7.0	계 몽 원	36.6
책	6.1	배 우 자	15.5
라 디 오	4.0	의 사	7.9
잡 지	3.4	친 구·이웃·선 후 배	7.4
가 정 의 벗	1.0	스 스 로	3.0
텔 레 비 전	0.6	학 교(선생)	1.7
주 간 지	0.1	직 장 등 료	1.2
영 화	0.1	가 족, 적 친	1.2
팜 프 린트	0.1	어 머 니 교 실 강 연	1.0
포 스티	0	군 대 (예 비 군)	1.0
		약 사	1.0
事 例 數	173	事 例 數	600

Adoption 段階에서의 Mass Communication과 Personal Communication의 役割은 2:8의 比率로 나타난다.

表 3-19의 Awareness 단계에서는 그 比率이 4:6이었으나 막상 Adoption 단계에 들어서 Personal Communication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그 原因을 밝혀보면, Awareness 단계에서는 없었던 “配遇者 (16%)”란 Source가 새로이

追加되었기 때문이다.

피입方法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FP實踐에 있어서는 配遇者의 協助가 必要할 것이므로 이는 當然한 變化라고 하겠다.

Personal Communication 中에는 계몽원이 37%로 Awareness 단계에서와 같이 首位이며 다음이 새로이 追加된 配遇者가 16%, 의사가 8%로 增加추세이다.

Mass Communication에서는 라디오와 책의 順序가 바뀌어 책이 6%로 第2位를 차지하고 있다.

《地域別》

表 3-19.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農 村
Mass Communication	34.4	25.2	6.1
신 문	12.3	6.9	0.8
잡 지	5.2	3.0	1.5
책	11.7	3.9	1.1
라 디 오	2.3	9.9	1.5
기 타	2.9	1.5	1.2
Personal Communication	65.6	74.8	93.9
계 몽 원	6.5	34.0	74.4
의 사	13.6	7.4	1.5
배 우 자	25.3	7.4	10.3
기 타	20.5	16.0	7.7
事 例 數	308	203	262

1) <서울中流>

Awareness 단계에서와는 反對로 Personal Communication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Mass : Personal=34 : 66)

이처럼 Personal Communication의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원의 영향력은 오히려 11%에서 6%로 줄었다. 反面 “配遇者”가 25%로 全 Media中에서 가장 높아졌으며 “의사”가 14%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配遇者의 영향력이 이처럼 높아진 理由는 “서울中流地域”의 피입方法에 基因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表 2-18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中流住民은 콘돔 (26%), 월경주기법 (23%)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方法은 주로 相對方(특히 男便)의 協助없이는 實踐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2) <서울下流>

세地域中에서 Awareness 단계와 別差異를 보이지 않는 唯一한 地域이다.

물론 Personal Communication의 영향력이 10%정도 늘고 “配遇者” (7%)라는 새로운 Source가 등장하였으나 “계몽원”(34%)의 영향은 Awareness 단계에서 보다 4%정도 줄었다. “라디오” (10%)는 如前히 계몽원 다음으로 第2位를 차지하였으며 Mass Communication

中에서는 으뜸이다.

따라서 서울下流지역에서는 FP實踐단계에서조차도 “配遇者” 보다는 “계몽원”과 “라디오”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있다는 事實을 重視해야 한다.

이는 “서울下流” 住民의 主使用 皮임方法 (먹는 피임약 34%, 루우프 24%)에 原因이 있는 것 같다.

이 方法은 주로 女性만의 決心만으로도 可能하기 때문이다.

3) <農村>

Mass Communication의 영향은 더욱 보잘것 없어서 6%에 不過하다. 더욱 注目할 點은 라디오의 영향력이 1.5%로 줄었다는 事實이다.

결국 農村住民의 FP adoption은 全的으로 “계몽원”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無방하다.

“계몽원”은 무려 74%로 Awareness 단계에서 보다 5%나 增加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現狀이다.

“配遇者”가 10%로 되었으나 “계몽원”에 비하면 미미한 數字이다.

表 3-20. 學歷別 實踐 決定時의 情報源

《學歷別》			表 3-20. 學歷別 實踐 決定時의 情報源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Mass Communication			12.2	7.4	20.9	30.3	39.4
신	문		1.4	0.8	6.1	13.6	12.5
잡	지		1.4	1.2	0.9	6.1	6.3
	책		4.1	0.4	4.3	3.8	15.9
라	디	오	4.1	4.9	6.1	4.5	1.4
기	타		1.4	0	3.5	2.3	3.3
Personal Communication			87.8	92.6	79.1	69.7	60.6
계	몽	원	59.5	66.4	39.1	18.2	3.8
의	사		5.4	3.3	10.4	10.6	11.1
배	우	자	13.5	9.8	11.3	18.2	23.6
기	타		9.4	13.1	18.3	22.7	22.1
事	例	數	74	244	115	132	208

學歷이 높아질수록 Mass Communication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事實에는 變함이 없다. 다만 Mass Communication의 영향이 Awareness단계에서 보다 低學歷者의 경우는 약간, 高學歷者의 경우는 대단히 많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配遇者”와 “의사”가 새로이 등장한 것도 《地域別 分類》에서와 같다.

3. Mass Media別 效率性 比較

가. Output (利用率×記憶度)

Output의 基準値로는 各 Mass Media 利用率과 各 Mass Media 접촉後의 FP 弘報內容 記憶도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잠시 言及한 바와같이, Mass Media 利用率과 利用者의 FP 홍보내용 記憶度를 곱한 數値는 FP 弘報活動이 Input로서 各 Media를 通하여 調查對象者속에 投入되었을 때 對象者 中の 몇명이 FP 홍보내용을 記憶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尺度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各 Mass Media 利用率은 調查對象者 中 그 Media 利用者의 比率이 되며, 各 Media別 記憶度는 그 Media 利用者 中 FP홍보내용을 記憶하고 있는 者를 나타내는 比率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Media 利用者가 구체적으로 FP 弘報內容 中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區分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各 Mass Media別 效率性을 對象者全體로 일단 살펴본 後 Mass Communicaion 戰略上 分類 意義가 가장 큰 “地域別” Output를 比較해 보기로 한다.

表 3-21. 全體로 본 Output

區	分	利 用 率	記 憶 度	Output
신	문	67	68	46
주	간	52	58	30
월	간	49	65	32
라	디	92	79	73
T	V	69	63	43
영	화	44	47	21

各 Media의 Output를 數値化하여 比較한 結果는 라디오가 73으로 단연 높고, 이보다 훨씬 떨어진 水準이기는 하나 신문과 TV가 各各 46, 43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表 3-22. 地域別 Output

區	分	서울 中 流			서울 下 流			農 村		
		利用率	記憶度	Output	利用率	記憶度	Output	利用率	記憶度	Output
신	문	98	77	76	69	47	32	36	79	28
주	간	77	62	48	62	47	29	21	79	17
월	간	82	68	56	47	53	25	22	79	17
라	디	91	72	66	93	71	66	91	91	83
T	V	97	74	72	61	44	27	50	65	33
영	화	64	52	33	46	37	17	25	56	14
平	均	85	67	57	63	50	32	41	75	31

주간지와 월간지는 32와 30으로 거의 비슷한 水準이다.

이를 다시 <地域別>로 나누어 보자. 먼저 平均値를 比較하면 「서울下流」가 32, 「農村」이 31로 거의 비슷하며 「서울中流」는 兩地域의 거의 두배에 가까운 57이나 된다.

地域別로 平均値를 上廻하는 Media를 찾아보면 「서울中流」에서는 신문(76), TV(72),

라디오(66)이며 「서울下流」에서는 라디오(66) 한가지 뿐이고 「農村」에서는 라디오가 83으로 다른 Media의 3배 정도나 되며 TV도 33으로 평균치(31)보다는 높으나 表 3-11에서 본바와 같이 “每日視聽率”은 12%뿐이므로 실제로는 平均値에 훨씬 未達한다고 볼 수 있다.

以上에서 본 것을 整理하여 地域別로 보다 效果的인 Media를 提示해 보면, 라디오는 어느 地域에서나 덕혀 들어가는 가장 우수한 Media 임을 알 수 있고 「서울中流」 지역에서는 신문과 TV 「서울下流」와 「農村」지역에서는 라디오 한가지 뿐이다.

나. Input

Input의 基準値는 여러가지 要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어떤 弘報內容을 傳達하였는가?

둘째, 傳達量 즉 라디오, TV, 映畫에서는 放送된 時間 그리고 新聞, 雜誌에서는 割當된 紙面

셋째, 各 Media에 投入된 弘報費用 等이다.

위의 3가지 基本要素 中에서 첫째의 弘報內容은 多分히 質的 概念일뿐만 아니라 Media 別로 傳達할 수 있는 內容의 限界가 다르므로 基準値로는 適合하지 않다.

다음에 放送된 時間 또는 割當된 紙面은 各其 計算單位가 다를뿐만 아니라 計算方法이 극히 복잡하여 역시 基準値로서 適當하지 않다.

따라서 各 Media에 投入된 弘報費用이라는 一定한 單位를 基準値로 삼기로 한다.

여기서도 費用이 投入된 期間이 問題되겠으나 이번 調査가 실제로 행해진 1974年을 基準으로 하여 FP홍보활동 主管부서인 PPFK의 1974年度 弘報活動費用을 基準値로 定하고자 한다.

(參照 : UNFPA-Assisted Project Progress Report-Amid-term Report)

表 3-23. 全體로 본 Input

區	分	弘報費用 (Won)	Input
신	문	4,478,000	45
주	간지	3,450,000	35
월	간지	3,450,000	35
라	디오	27,729,000	277
T	V	19,378,000	194
영	화	3,796,000	38

但, PPFK 報告書에 주간지, 월간지로 區分되지 않고 Magazine으로 表示되어 이를 兩分하였음

다. Media別 效率性 比較

以上에서 各 Media別 效率性을 比較하기 위한 Output와 Input의 基準値가 定해졌다.

다만 Input가 地域別로 分類될 수 없는 性質의 數值이므로 “地域別 比較”에서는 그대로

全體의 Input值를 使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Input의 基準值인 弘報費用 自體도 Media 種類에 따라 一定한 內容의 弘報活動에 수반되는 費用이 各其 다를 것이므로 6個 Media를 비교적 同質的인 두 group, 즉 紙上媒體 group(신문, 주간지, 월간지), 放送媒體 group(라디오, TV, 영화)으로 나누어 各 group에 적용할 基準值를 달리하기로 한다. 여기서 “映畫”는 Input를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Output는 100이라는 限界點이 있는 反面 Input는 限界值가 없어 投入費用이 3倍 以上 差가 날때는 比較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映畫의 Input 換算值는 그대로 “1\*”을 代入하기로 한다.

表 3-24. 全體로 본 效率性 比較

區	分	Output	Input	Input換算值	Output/Input換算值
신	문	46	45	1.3	35
주	간	30	35	1	30
월	간	32	35	1	32
라	디	73	277	1.4	52
T	V	43	194	1	43
영	화	21	38	1*	21

Input 換算值를 適用한 結果, 신문과 라디오의 Output值가 훨씬 줄었다.

신문은 주간지, 월간지와 거의 같은 水準으로 되었고 라디오와 TV의 差도 상당히 적어졌다.

表 3-25. 地域別 效率性 比較

區	分	서울 中流	서울 下流	農 村
신	문	58**	25	22
주	간	48	29	17
월	간	56*	25	17
라	디	47	47	59*
T	V	72*	27	33
영	화	33	17	14

(\*表: 戰略 Media)

<地域別>로 보면 「서울中流」에서 신문이 월간지와 같은 水準으로 되어있고 라디오의 영향력이 더욱 낮아져 下位 group에 속하게 되어 TV만이 「戰略 Media」의 위치를 固守하게 되었다. 「서울下流」는 全般的으로 Media의 效率이 낮다. Top의 위치를 차지한 라디오가 47로 「서울中流」의 下位 group과 같은 水準이다.

「農村」은 라디오를 除外하면 그 效率이 더욱 낮아지며 라디오만이 戰略 Media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여기서 效率性 50以上の 戰略 Media를 골라보면 「서울中流」의 TV, 신문, 월간지 「농촌」의 라디오를 들 수 있다.

「서울下流」는 해당되는 Media가 없어 可히 Mass Media 不毛地라 하겠다.

### 第三節 Slogan 및 惡所聞에 對한 反應

#### 1. Slogan

여기서는 FP弘報活動 內容의 一部分인 FP Slogan에 對한 認知度와 그 內容에 對한 贊成與否 및 贊成程度를 파악 하여 보겠다.

分析對象이 된 Slogan은 이번 調查 實施 期間인 1974년에 使用된 것으로서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1974년은 임신 안하는 해”의 두가지 내용이다.

가.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全體》

表 3-26. 全體의 認知度(위 구호를 듣거나 본적 있는가?)

區	分	N	%
있	다	1,314	98.8
없	다	14	1.0
NR. DK		3	0.2
事	例	數	
		1,331	

表 3-27. 全體의 反應(위 구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는가?)

區	分	%
“둘만 낳자” “딸, 아들 구별말자”가 모두 곤란하다		15.7
“딸, 아들 구별말자”만은 곤란하다.		31.4
“둘만 낳자”만은 곤란하다		4.2
“둘만 낳자” “딸, 아들 구별 말자” 모두 좋다		47.7
事	例	數
		1,314

調查對象者中 99%가 이 구호를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答하였다. 따라서 이 구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구호에 對한 反應은 “둘만 낳자” “딸, 아들 구별말자”의 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두가지 內容 모두 곤란하다고 否定的인 反應을 보인 사람은 16%에 不過한데 비해 두가지 內容이 모두 좋다고 積極적인 態度를 보인 사람은 48%로 全對象者의 半數가 이 구호 內容에 全的인 贊成을 하고 있다.

部分的인 否定反應을 보인 사람中 “둘만 낳자”는데 反對하는 사람은 4%로 아주 적은 反

面 “딸, 아들 구별말자”는데 反對하는 사람은 31%나 된다. 아직도 우리 社會에 男兒選好 思想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둘만 낳자”는 구호內容은 80% 以上の 對象者의 贊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구호는 成功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地域別》 表 3-28. 地域別 反應

區	分	서울 中 流	서울 下 流	農 村
“둘만 낳자” “딸, 아들 구별말자” 모두 곤란하다.		4.7	5.1	33.3
“딸, 아들 구별말자” 만은 곤란하다.		22.5	23.4	45.2
“둘만 낳자” 만은 곤란하다.		5.0	6.1	2.0
“둘만 낳자” “딸, 아들 구별말자” 모두 좋다.		66.6	64.2	18.7
事 例 數		421	393	500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問項分析에서 언제나 많은 격차를 보였던 「서울中流」와 「서울下流」 地域이 이 問項에서 처음으로 거의 一致된 態度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兩地域과 농촌은 현격한 差가 있다.

우선 두가지 內容 모두에 對한 積極적인 贊成度도 서울地域 65%에 비해 농촌은 19%로 훨씬 뒤지고 있으며 “딸·아들 구별말자”에 對한 拒否反應은 농촌 45%, 서울지역 23%로 농촌이 두 배나 높다. FP에 對한 知識이나 FP弘報內容에 對한 記憶度 등에서는 「서울下流」 지역보다 훨씬 좋은 反應을 보였던 농촌지역이 보다 進取的인 이 구호 內容에 對하여는 이 처럼 消極的이고 保守的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나. 1974년은 임신 안하는 해

《全體》 表 3-29. 全體의 認知度(이 구호를 듣거나 본적이 있는가?)

區	分	N	%
있	다	517	38.9
없	다	814	61.2
事 例 數		1,331	

表 3-30. 全體의 反應(이 구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는가?)

區	分	%
	당지도 않은 구호다.	5.6
	납득하기 힘든 구호다.	33.3
	납득이 갈만한 구호다.	42.6
	매우 좋은 구호다.	18.6
事 例 數		517

## 《地域別》

表 3-31. 地域別 認知度

區	分	서울 中 流	서울 下 流	農 村
있	다	48.0	32.9	35.9
없	다	52.0	67.1	64.1
事 例	數	427	399	505

表 3-32. 地域別 反應

區	分	서울 中 流	서울 下 流	農 村
당치도 않은 구호다.		6.3	4.7	5.6
납득하기 약간 힘든 구호다		37.0	25.6	34.4
납득이 갈만한 구호다.		40.4	47.3	41.7
매우 좋은 구호다.		16.3	22.4	18.3
事 例	數	208	129	180

이 구호를 듣거나 본적이 있는 사람은 40%에 不過하다. 그러나 이 구호에 對한 反應은 좋은 편이다. 肯定的인 反應이 61%, “매우 좋은 구호”라고 적극적인 呼應을 한 사람이 19%로 全體의 約 5분의 1이나 된다.

《地域別》로 分類해 보면, 認知度 面에서는 서울中流가 48%로 서울下流 33%, 농촌 36%보다 약간 높으나 이 구호에 對한 評價面에서는 오히려 他地域보다 더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肯定反應度를 비교하면 서울中流 57%, 서울下流 70%, 농촌 60%로 서울中流가 제일 낮으며 서울下流는 지금까지의 問項中에서 처음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구호는 서울 下流地域에서 크게 어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惡所聞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風聞 또는 惡所聞이 많이 떠돌고 있으나 특히 家族計劃에 關한 惡所聞은 엄청나게 많아 이것이 FP事業 推進에 막대한 阻礙을 주고 있다.

예를들면 第二章의 表 2-26에서 본마와 같이 “피임을 中斷한 理由”中에서 “피임 方法에서 오는 不作用때문에”가 48%로 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中斷者들 (136名)이 호소하는 不作用是 거의 風聞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調查對象者들이 惡所聞을 어느 程度나 듣고 있으며 이들이 이러한 惡所聞을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FP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무려 82%나 된다. FP에 關한 風聞이 많이 떠돌고 있다는 事實이 證明된 셈이다.

## 《全體》

表 3-33. FP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區	分	%
들은 적이 없다		18.3
한 두 번 들었다		24.4
가끔 들었다		39.3
자주 들었다		18.0
事 例 數		1,331

表 3-34. 과연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區	分	%
아주 해롭다		7.7
해로울 수도 있다		51.1
그저 그렇다		9.1
별로 해롭지 않다		17.4
전혀 해롭지 않다		13.3

表 3-35. FP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地域別)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농 촌
들은 적이 없다		23.9	19.3	12.7
한 두 번 들었다		31.9	22.6	19.6
가끔 들었다		33.1	39.1	44.8
자주 들었다		11.1	19.0	23.0

表 3-36. 과연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地域別)

區	分	서 울 中 流	서 울 下 流	농 촌
아주 해롭다		4.7	9.3	9.0
해로울 수도 있다		44.5	55.7	52.9
그저 그렇다		10.4	8.3	8.6
별로 해롭지 않다		18.8	13.6	19.3
전혀 해롭지 않다		20.7	11.1	8.8

表 3-37. FP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學歷別)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들은 적이 없다		15.7	15.2	17.4	16.4	27.4
한 두 번 들었다		25.0	22.3	17.9	25.0	32.6
가끔 들었다		42.9	41.1	42.5	40.9	30.4
자주 들었다		16.4	21.5	22.5	17.7	96.6
事 例 數		140	494	207	220	270

表 3-38. 과연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學歷別)

區 分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아주 해롭다	10.7	9.9	9.2	3.6	4.1
해로울 수도 있다	55.0	53.0	52.2	51.8	43.7
그저 그렇다	12.9	7.9	10.1	10.5	7.0
별로 해롭지 않다	12.9	17.8	18.8	15.5	19.3
전혀 해롭지 않다	7.1	8.3	9.2	16.8	25.6

表 3-39. FP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性別)

區 分	男	女
들은 적이 없다	22.3	14.6
한 두번 들었다	25.9	23.2
가끔 들었다	35.9	42.6
자주 들었다	16.1	19.8
事 例 數	639	692

表 3-40. 과연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性別)

區 分	男	女
아주 해롭다	6.6	8.6
해로울 수도 있다	49.4	52.6
그저 그렇다	8.3	9.8
별로 해롭지 않다	18.6	16.4
전혀 해롭지 않다	16.4	10.4

<地域別>로 보면 농촌지역이 제일 높아 87%가 惡所聞을 들었으며 서울中流가 76%로 제일 낮다. 惡所聞을 “자주 들은 사람”도 농촌지역이 23%로 서울中流 11%의 두배를 넘고 있다.

地域的인 特性으로 보아, 도시 下流지역에서 악소문이 가장 많이 떠돌 것으로 豫想하였으나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惡所聞을 들어본 사람은 적다(81%). 그러나 이러한 악소문을 들어본 경험과 이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與否는 別個問題이다. 이에 對해서는 잠시 後에 言及하겠다.

<學歷別>로 보면 高卒者 以下는 거의 비슷한 水準으로 나타나며(約 84%) 大卒者만이 74%로 地域別 分類에서의 도시中流지역 (76%)과 비슷한 水準이다.

<性別>로 볼때 女子가 83%로 남자 78%보다 약간 더 風聞을 많이 듣고 있다.

그렇다면 FP에 관한 수많은 惡所聞을 듣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어느 程度나 이를 믿고 있는가? FP實踐이 과연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설혹 FP에 關한 惡所聞이 주위에서 자주 들린다고 하더라도 들은 사람이 이를 믿지 않는 한 FP 事業推進上 惹起되는 問題

點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선 調査對象者 <全體>로 볼때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9%로 “해롭지 않다”는 사람 (31%)의 두배에 가깝다. 즉 FP에 關한 惡所聞을 들은 사람의 3분의 2는 이를 그대로 믿거나 자기 나름대로 皮임方法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地域別>로 보면 “해롭다”가 서울中流 49%, 서울下流 65%, 農村 62%이며 “해롭지 않다”가 서울中流 40%, 서울下流 25%, 농촌 28%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惡所聞을 들은 사람의 比率은 농촌 (87%)이 서울下流 (81%)보다 약간 많았으나 이 所聞을 믿고 있는 사람은 농촌 (62%)이 서울下流 (65%)보다 약간 적다.

서울中流지역은 “해롭다” (49%)와 “해롭지 않다” (40%)가 거의 비슷한 水準이기는 하나 FP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中流層에서도 半數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은 놀라운 일이다.

學歷別로 “해롭다”는 사람의 比率을 보면 無學歷者・國卒者 66%, 中卒者 63%, 高卒者 61%, 大卒者 55%이다. 學歷이 높아질수록 風聞을 믿는 사람의 比率이 낮아지기는 하나 大卒者조차도 48% 즉 半數에 가깝게 FP 實踐을 半信半疑하고 있다는 것은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앞에서 나온 第二章 第三節의 現在의 皮임 實踐率을 想起해 보면 全體的으로 58%, 특히 大卒者의 경우는 72%로 家族計劃 史上 유례없이 높았다.

그러나 여기서의 惡所聞의 結果와 比較하여 볼때, 全體的으로 最少限 27% (皮임실천율 58%—해롭지 않다 31%), 大卒者의 경우도 最少限 27% (皮임실천율 72%—해롭지 않다 45%)의 사람이 FP를 믿지 못하고 있다.

결국 全體的으로 FP現在실천자 중의 約 半數 (27%/58%)가 大卒者의 경우에도 現在 實踐者의 約 3분의 1 (27%/72%)이 FP를 믿지 않고 있다는 事實이 證明되었다. 따라서 이들(現在 FP實踐中이나 FP不信者)은 언젠고 FP實踐隊列에서 脫落할 可能性이 있다. 특히 FP實踐이 몸에 아주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脫落可能性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調査에서 나타난 FP實踐率 58%는 지금까지의 어떤 調査結果보다도 훨씬 높은 數值이나 이와같이 FP中斷 可能性이 높은 點을 감안하면 이 數值는 어딘가 不安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FP事業 遂行上 다시 한번 돌이켜 反省해야 할 點은, 目標量 達成等의 形式的인 측면에만 너무 몰두하여 FP 채택 후의 事後管理 및 FP계몽교육을 소홀히 한 感이 짙다. 앞으로는 이러한 面에 좀더 힘을 기울여 惡所聞을 完化내지 除去시킴으로써 FP實踐者의 脫落 또는 中斷을 防止하는데 注力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性別>로 對比해 보면 女子가 男子보다 惡所聞을 더 많이 들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높다. (女子 61%, 男子 56%)

第四節 Communication 變數間的 相關關係

Communication 變數 사이에는 서로 어떠한 聯關關係가 있는가? 또한 그들 사이에 關係가 있다면 어느 程度나 密接한 關係가 있는가? 즉 Communication 變數가 變함에 따라 FP 事業에 어느 만큼의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相關關係에 對한 數學的인 說明은 省略하기로 한다. 다만 Communication 變數 設定에 關한 說明만을 덧붙이겠다.

먼저 從屬變數로는 第二章에서 言及된 FP에 對한 知識·態度·實踐의 각 측면에서 4가지 變數를 抽出하였다.

첫째, FP受容可能性, 둘째 FP의 必要性 認識程度, 셋째 피임方法 認知度, 넷째 피임에 대한 신뢰도로서 이 4變數를 量化시킨 後 合算하여 從屬變數로 定하였다. 이 從屬變數는 FP事業 自體를 意味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에 獨立變數는 Mass Communication과 Persoal Communication 두가지로 大分한 後 Mass Communication은 다시 신문, 주간지, 월간지, 라디오, TV, 영화의 6個 變數로, Personal Communication은 부부간의 對話, 이웃, 친구, 친척과의 對話, 계몽원, 惡所聞의 5個 變數로 나누었다.

이 모든 變數는 量化시킨 後 從屬變數와의 單純 相關關係를 考察하였다. 즉 獨立變數中의 個個變數마다 從屬變數와의 相關係數를 모두 計算하였다. 그 結果는 다음 表와 같다.

表 3-41. FP와 Communication 變數間的 相關係數

變數	Mass Comm.	신 문						Personal Comm.					
		신 문	주간지	월간지	라디오	T V	영 화	부 대	부 화	이웃·친척대	계몽원	악소문	
全 體	.203**	.214**	.143**	.187**	.152**	.204**	.019	.384**	.262**	.225**	.411**	-.020	
地 域	서울中流	.228**	.316**	-.013	.215**	.087	.213**	-.083	.315**	.386**	-.105	.123*	.149**
	서울下流	.189**	.184**	.116**	.124*	.193**	.202**	.146**	.397**	.187**	.242**	.473**	-.157**
別	농 촌	.215**	.151**	.193**	.208**	.275**	.165**	-.078	.434**	.216**	.359**	.502**	.183**

\*\* : 有意水準 0.01에서 有意

\* : " 0.05 "

먼저 위에서 計算된 相關係數의 有意性을 檢定하였다.

檢定은 統計學的 檢定方法에 따라  $F = \frac{r^2(n-2)}{1-r^2}$ 의 公式를 利用하였으며 有意水準은 5%와 1%를 基準으로 하였다.

그 結果 有意水準 5%에서 有意한 相關係數는 \*表, 有意水準 1%에서 有意한 相關係數는 \*\*表로 表示하였다.

從屬變數(FP事業)와 各 獨立變數와의 相關關係를 보면, 앞의 第一節, 第二節에서 본 바와 같이 Mass Communication 보다는 Personal Communication이 相關係數가 높으며 全變數中에서 가장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는 것은 “계몽원”이다. 다만 「서울中流」지역만은 “夫婦間의 對話”가 가장 높은 變數임을 볼 수 있다.

다른 內容은 이미 第一節, 第二節에서 說明한 內容과 아주 類似하므로 여기서 되풀이 說明하지 않기로 한다.

## 第四章 結 論

### 1. 知識, 態度, 實踐

#### (가) 知 識

7가지 피임方法에 대한 知識水準은 54%이다. 使用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避妊法은 콘돔이며(70%) 제일 알려지지 않은 方法은 “일경주기법”(39%)이다. 現在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는 세가지 方法(먹는 피임약, 루프, 콘돔)에 대한 知識水準은 63%로 上昇되며 地域別로 보아 「서울下流」지역이 48%로 그동안 政府에서 集中的인 支援을 하여온 「農村」지역보다 6%나 낮은 水準이다.

특히 他地域에 比하여 “정관수술”에 對한 知識이 낮으므로 이 地域에 대한 特別對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 (나) 態 度

“둘만 낳기” “아들·딸 區別않기”運動에 對한 態度는 農村地域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아들尊重程度 2.6배 強, 總子女數 4.0名).

農村은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 態度, 實踐의 모든 面에서 서울下流地域보다 앞서고 있으나 가장 現實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아직도 傳統의 價値觀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中流地域이 위의 두가지 目標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鼓舞的인 現象이다.(아들尊重程度 1.2배, 總子女數 2.88名).

家族計劃의 必要性 認識度는 대단히 높다. 國家的 次元(우리나라의 形便上)에서 96%의 贊成을, 個人的 次元(個人的 形便上)에서 84%의 贊成을 나타내고 있다.

家族計劃에 對한 信賴度는 70%로 家族計劃의 必要性 認識度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 이 信賴도를 必要性 認識度水準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時急한 問題이다.

#### (다) 實 踐

現在 實踐率은 58%이며 서울中流地域은 72%나 된다. 家族計劃史上 가장 높은 實踐率로.



생각된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먹는 피임약(24%), 루프(20%), 콘돔(17%)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中流”地域만을 보면 콘돔(26%), 월경주기법(23%)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主使用 避妊方法( 주로 먹는 피임약, 프루에 依存)과는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다. 現在 非實踐者中에서도 91%가 앞으로 家族計劃을 실시할 계획이다.

#### (라) 結 語

가장 理想的인 家族計劃事業推進方向은 KAP間의 乖離없이 그 水準을 向上시켜 가는 길일 것이다.

이 調査에서 나타난 結果를 보면 知識 54%, 態度(信賴度 70%, 贊成度 90%), 實踐 58%의 水準이다. 이 中에서 가장 저조한 것이 知識水準이며 이는 現在의 實踐率보다도 낮다.

이 知識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이 急先務이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知識水準과 實踐率을 態度水準까지 上昇시킬뿐만 아니라 態度中에서도 信賴度를 贊成度 水準까지 上昇시키는 것이다. 家族計劃에 對한 信賴도가 向上되고 높은 知識水準이 이를 뒷받침 한다면 實踐率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와같은 効率的인 目標達成을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持續的이며 體系的인 弘報啓蒙活動이 必要하다고 본다.

## 2. Mass Media의 效率性 比較

各 Mass Media의 效率性은 Mass Media 利用率과 利用者의 家族計劃弘報內容 記憶度を 混用하여 比較하였다.

6個 Mass Media의 平均値를 보면 “서울中流” 57, “서울下流” 32, “農村” 31로서 現地調査가 이루어진 時點(1974年 8月)까지 mass media를 通하여 家族計劃에 關한 弘報를 들어 본 사람이 서울 中流中域에서는 100名中 57名이라는 結論이다. 결국 效率性 面에서 볼때 서울 中流地域이 서울下流나 農村地域보다 約 2倍정도 높다고 할 수 있다.

各 Media別로 效率性 50 以上을 살펴보면 서울 中流地域에서 신문, TV, 라디오, 서울下流와 農村地域에서는 라디오 한가지뿐이다. 그러나 Mass Media의 弘報活動에 投入된 費用을 勘案하여 그 效率性을 再評價하면 效率性 50 以上の 戰略 Media는 “서울中流”에서 TV, 신문, 월간지, “農村”에서 라디오이며 “서울下流”地域은 해당되는 media가 없어 Mass Media 不毛地라 할 수 있다.

## 3. Media 別 家族計劃 寄與度

家族計劃을 채택하게 되기까지 決定的인 영향력을 미친 各 Media를 살펴보면 Mass Communication이 20%, Personal Communication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全體 Communication 手段中 가장 큰 影響을 미친 것은 “啓蒙員”으로서 37%나 된다.

地域別로 나누어 보면 〈都市中流〉는 Mass Communication이 34%, Personal Communication이 66%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Mass Communication의 영향력이 크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leading media는 “配遇者”(25%)이며 의사가 14%나 되는데 비해 啓蒙員은 6%에 不過하여 다른 地域과는 그 樣相이 다르다.

〈서울下流〉에서는 계몽원이 다시 부상되어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配遇者는 7%에 不過하다.

〈農村〉은 典型的인 “啓蒙員”依存地域으로서 계몽원의 영향은 무려 74%나 된다.

이와같이 “서울中流”를 除外한 모든 地域에서 絶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啓蒙員”의 管理 및 이들에 대한 教育訓練이 참으로 重要하다는 것을 實感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家族計劃事業推進方向은 이러한 “啓蒙員依存型”에서 벗어나 스스로 決定할 수 있는 形態 즉 “配遇者 依存型”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Mass Communication의 效果的인 活用이 이러한 方向轉換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 4. 惡所聞에 對한 反應

家族計劃이 몸에 해롭다는 惡所聞을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82%나 된다. 農村地域에서 87%가, 서울中流中域에서도 76%가 惡所聞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惡所聞을 들은 사람중에 과연 어느 정도나 이를 믿고 있는가?

對象者〈全體〉로 보아 “해롭다”가 무려 59%로 “해롭지 않다”(31%)의 두 배나 된다. 즉 惡所聞을 들은 사람의 3分の 2는 이를 그대로 믿거나 避妊方法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地域別〉로 보면 서울下流가 65%로 가장 높고 서울中流조차 惡所聞을 믿는 사람이 半數(49%)나 된다.

〈學歷別〉로 보아도 비록 學歷이 높아질수록 惡所聞을 믿는 사람의 比率이 낮아지기는 하나 大卒者까지도 48%나 이를 믿고 있다는 事實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같이 이번 調查에서 現在의 避妊實踐率은 58%로 家族計劃史上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惡所聞”의 結果를 分析하여 보면 現在 實踐者中の 約 半數가 惡所聞을 믿고 있다는 것이 證明된다.

이들은 언젠간 家族計劃 實踐隊列에서 脫落할 可能性이 크므로 現在의 높은 實踐率을 자랑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계획의 계몽교육 및 가족계획 채택 後의 事後管理에 좀더 힘을 기우려 惡所聞 等에 대한 對策을 강구함으로써 더 많은 家族計劃 實踐者의 확보는 물론 現在 實踐者의 脫落 또는 中斷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